

세계가 반한 '젊은 거장' 들 광주 온다

금호아트홀, 내달 5일 바이올린 김다미·피아노 문지영 듀엣
8월 10일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손정범 듀오 콘서트
광주문화재단, 내달 7일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 초청

피아니스트 김선숙, 조성진, 선우예린 등 젊은 연주자들이 세계 유수 콩쿠르를 석권하며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거장'들의 등장은 클래식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수준높은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클래식 무대를 소개해온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준비한 두차례의 클래식 연주와 세종솔로이스츠의 광주 공연은 클래식 팬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준비한 첫 연주회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듀엣 공연(7월 5일 오후 7시30분)이다.

독일 하노버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파가니니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등은 2위 및 최고의 파나니니 카프리스 특별상을 수상한 김다미는 지난 2015년 루체른 페스티벌 리사이틀을 전석 매진시키며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다.

여수 출신으로 동양인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의 부조니 코쿠르에서 우승한 문지영은 제네바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의 첫 듀엣 무대로 기대를 모은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전곡' (제1번 가단조 작품 105, 제2번 라단조 작품 121, 3번 가단조, WoO 2)이다. 독일 낭만주의 시대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슈만은 40년 남짓한 생애를 사는 동안 남치는 재능만큼 우울증과 환청으로 고통 받았다.

그가 인생 말년에 동시적으로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1, 2, 3번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8월 10일 열리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듀오 콘서트 역시 기대되는 무대다.

김봄소리는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콩쿠르에서 9개의 특별상을 휩쓸고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뮌헨 ARD 국제 음악콩쿠르등에서 입상한 가장 핫한 연주자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손정범은 지난해 열린 뮌헨 ARD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피아니스트다.

연주 레퍼토리는 메시앙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A장조 F#W 8', 모리스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G장조, M.77', 외젠 이자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카미유 생상스 왈츠 형식의 에튀드'에 의한 카프리스, Op.52' 등이다. 티켓 가격 일반 4만원, 학생 2만원.

클래식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도 광주를 찾는다.

광주문화재단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 번째 공연으로 '세종솔로이스츠'를 초청해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전 세계에서 한국 클래식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의 이번 무대는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라는 부제 아래 최정상의 젊은 비르투오소들이 화려한 독주와 협주로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다.

세종 솔로이스츠는 지난 1994년 강호 줄리어드 음대 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8개국 출신 최정상 기량의 젊은 연주자들을 초대해 창설한 현악오케스트라 명성 높은 카네기홀과 케네디센터 자체 기획공연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 연주단체이기도 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흥보대사를 맡기도 했던 세종솔로이스츠는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여 회의 연주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다. 제1부에서는 영국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 '심플 심포니 작품 제4번'을 시작으로 아르망드 라즈바란이 편곡한 레오나르드의 '스페인풍 세레나데 유모레스크', 스토폴스키가 편곡한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3번 D장조 작품 1068' 중 '아리아'를 선보인다.

제2부에서는 현악 오케스트라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무대에 올린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70-79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피아니스트 문지영



앙상블 '세종 솔로이스츠'

'빛의 마술사' 클로드 모네 읽어주는 남자

시립미술관 30일 이창용 강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진행하는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유럽 미술 여행' 두번째 강의를 오는 30일 오후 3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의를 진행하는 이창용(아트스토리 105 대표)씨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 현지가이드, 이탈리아 바티칸 현지가이드, 국내 한가람 미술관 인상파 특별전 도슨트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은 후 현재 미술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라, 빛의 마술사'로 클로드 모네(1840-1926)의 일생과 작품을 살펴본다.

이씨는 '인상파의 창시자'이자 '빛의 사냥꾼'이라 불렀던 모네가 정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아내 까미유 동시외와의 슬픈 사랑이야기, 슬한 작품에 담긴 일화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다룬 지난 4월의 첫번째 강의에는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디에고 벨라스케스'(8월25일), '장 프랑수아 밀레'(10월27일)를 다룰 예정이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7157/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과 아내 까미유 동시외와의 슬픈 사랑이야기, 슬한 작품에 담긴 일화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다룬 지난 4월의 첫번째 강의에는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디에고 벨라스케스'(8월25일), '장 프랑수아 밀레'(10월27일)를 다룰 예정이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7157/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은미작 '연두의 저녁'

광주·전주 물빛수채화 교류전

내일~7월 3일 무등갤러리

광주와 전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채화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제6회 광주·전주 물빛수채화 교류전이 28일부터 7월3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물빛' 이름을 인연 삼아 6년 전부터 두 도시를 오가며 합동전시회를 열고 있는 두 단체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연스러운 번짐과 은은한 느낌 등 수채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물빛수채화회(회장 김은미)에서는 고미경·김옥순·김일삼·김수정·윤명화·임선영·이진희·윤정례·최정애·선안희·차혜순씨 등 1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자운영, 해바라기 등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비롯해 여수 종포, 오스트리아 등 국내외 풍광 등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또 사계절의 변화를 화폭에 옮겼으며 평범한 일상의 모습도 따뜻한 시각으로 담아냈다. 전주물빛수채화에서는 김계순·김수정·손미영·유승영·이영달·조숙·최문수씨 등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초대 일시는 30일 오후 5시30분.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성미경 '한지로 만나는 일상'

8월 10일까지 북카페 은새암

7월 2일·16일 체험행사도

한지공예 작가 성미경씨의 '한지로 만나는 일상' 전시 오는 8월10일까지 광주 여성재단 8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열린다.

성 작가는 (재)광주여성재단의 '2018년 작은전시 수공예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전시장에는 한지를 이용해 만든 생활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 40여개 작품이 마련됐다.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한지 아크릴 등(燈)에서부터 보석이나 다기를 진열할 수 있는 장식장, 한지실로 엮은 가방까지 생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예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성 작가는 시민들과의 예술적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오후 2시와 7월16일 오후 2시 제대내 전시공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무료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성 작가의 한지공예 이야기와 재료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1차 소



품바구니, 2차 탁상용 팔각시계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28일까지 제대 홈페이지(http://www.gjwf.or.kr) 및 이메일(vivid361@naver.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여성재단은 '2018년 작은전시 작가공모'를 통해 총 6명의 작가를 선정했고, 선정작가들은 성 작가의 제1차 전시 이후 순차적으로 전시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문의 062-670-05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